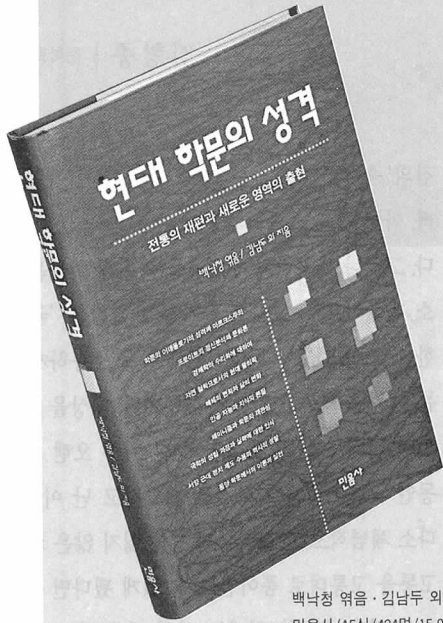


학문의 과학성에 대한 철저한 성찰 새로운 학문방향 모색에 기여

《현대 학문의 성격》



백낙청 역음 · 김남두 의 지음
민음사/A5신/424면/15,000원

현대는 과학과 함께 탄생했다. 현대성의 종말이 학문의 '과학성'에 강한 의문부호를 붙일 것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과학의 위대한 승리가 가져온 부메랑 효과는 일차적으로 자연 과학의 내부에서 감지됐다. 자연과학적 '진리들'은 더 이상 정상적인 말과 사유로는 표현될 수 없다는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다. 현대 학문의 진리들은 어찌면, 그것들이 과학적이면 과학적일수록 우리의 삶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무의미한 진술이 될 수도 있다. 현대성에 관한 논의가 학문의 과학성에 관한 성찰로 이어져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 책은 "전통의 재편과 새로운 영역의 출현"을 거시적으로 추적함으로써 학문의 과학성을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있다. 어려운 주제를 쉽게 풀어내는 필자들의 글솜씨가 과학성과 문학성을 아름답게 엮어내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이 책의 미덕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더욱 반가운 것은 학문의 변화를 인정하면서도 학문의 본질을 놓치지 않으려는 차분함과 진지함이다.

만약 학문이 변하고 있다면, 학문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규정했던 '과학성' 역시 변하리라는 것은 당연한 추론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변화가 감지되는 세 영역에 초점을 맞춰 구성돼 있다. 첫 장 <전통적 학문의 재편>은 오늘날에도 학문의 성격규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서양학문의 전환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마르크스주의,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언어학적 전회 등은 학문의 영역 내부에서 일어난 학문의 과학성에 대한 철저한 비판이다. 우리가 포스트모더니즘을 넘어서고자 한다면 이렇게 철저한 내재적 비판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닐까.

<지식세계의 새로운 영역의 출현>을 다루고 있는 둘째 장은 매체의 변화, 인공지능, 페미니즘과 같은 학문 외적인 영향을 정치하게 분석하고 있다. 우리의 삶과 인간조건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외부적인 여건에 따라 학문의 성격 역시 변하리라는 것은 당연한 추론이다. 문제는 이런 변화가 얼마나 근본적일 것인가 하는 물음으로 모아진다. 이 장은 현재의 문제를 다루지만, 공간적으로는 학문에 영향을 주는 바깥의 여건들에 눈을 돌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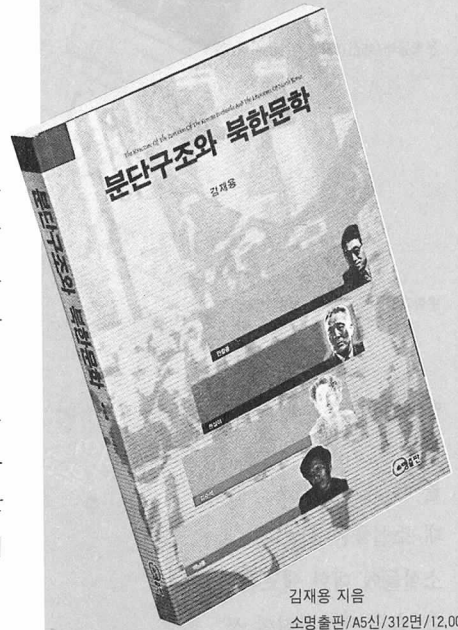
끝으로, 마지막 장을 이루고 있는 <현대 학문과 동양 학문의 과제>는 국학의 성립과정, 서양 정치제도의 수용과정, 성리학에서의 이론과 실천과 같은 주제를 통해 학문의 보편성과 특수성의 문제를 개진한다. 이 장을 감돌고 있는 회의적 색채에는 물론 자생적 패러다임을 구축하지 못한 우리 학문의 여건 탓도 있겠지만, 그것은 좀더 근본적인 문제로 환원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발전시킬 학문의 방향은 "변화된 조건에 적합한 학문은 무엇인가?"라는 물음과 밀접하게 결합돼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학문은 과연 가치 중립적이며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이 책의 다양한 글들을 이어주는 실마리가 되고 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오늘날 학문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사람이라면 "학문은 반드시 과학적이어야 하는가?"를 진지하게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책이 다양한 대답들을 산출할 수 있는 자극제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진우

계명대 철학과 교수. 저서 《한국 인문학의 서양 콤플렉스》 《이성정치와 문화민주주의》 《지상으로 내려온 철학》 외.

북한문학에 대한 총체적 조감도 통일문학사를 위한 의미있는 첫걸음

《분단구조와 북한문학》



김재용 지음
소명출판/A5신/312면/12,000원

반드시 있어야 할 책이 나왔다. 김재용의 《분단구조와 북한문학》이 그것이다. 저자의 문제의식과 소명의식이 텍스트 곳곳에 스며 있는 이 역서는 분단 이후 북한문학에 대한 총체적인 조감도다. 이 책은 분단 이후 북한문학의 흐름 모두를 거의 포괄할 뿐만 아니라 그 다양한 총체들을 체계적인 틀로 문맥화한다. 그래서 이 책은 당의 교리를 전파하는 문학 정도로 알려져 있는 북한문학이 사실은 다양한 주제·경향·방법에 의해 전개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동시에 북한문학의 핵심적인 특질과 그것의 역사적 기원까지 제시한다.

이 책이 이처럼 북한문학의 의미 있는 조감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일차적으로는 저자의 북한문학에 대한 남다른 관심 탓일 것이다. 저자는 북한문학(동시에 북한사회)을 전지구적 자본주의라는 단일한 중심원리를 넘어서려는 주변부의 전적으로 올바른 방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충분한 의미를 지닌 탈근대적 기획으로 규정한다. 그런 까닭에 저자는 전지구적 자본주의라는 중심원리에 대한 부정이자 동시에 순응의 형식인 남한문학의 관점에서 북한문학을 읽지 말고 북한문학 내부의 '아주 다채로운 개

성적 목소리'에 주목할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저자는 실제로 그런 맥락에 따라 북한문학을 움직이는 축을 '개성추구와 개인취미 비판'과 '계급성과 민족성'으로 설정하고 이 양축의 길항과 정으로 북한문학의 추이를 읽어낸다. 뿐만 아니라 한설야 등의 작품을 전지구적 자본주의를 넘어 서려는 제3세계문학의 흐름 속에 집어넣기도 한다.

하지만 이 책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저자는 북한문학이라는 타자를 적극적으로 배려한 결과 남한문학의 역사철학적 관점을 지나치게 약화시킨다. 저자는 전지구적 자본주의라는 보편성이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에게 관철되며 또 인간의 운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가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는다. 그 결과 과시즘이 그러했듯 북한의 주체사상이 혹은 탈근대적 기획이 아니라 근대적 이성의 광기일 수 있다는 사실이라든가, 아니면 저자가 북한문학의 중요한 성과로 인정하는 계급적인 것과 민족적인 것의 변증법이 과연 전지구적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얼마나 현실성 있는 기획인가 하는 점들이 저자의 관심에는 미약하게 들어서 있다. 그래서 저자는 북한문학이 제3세계 문학사 혹은 세계문학사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얘기하기는 하지만, 그 대목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의 문제성이 반감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것까지가 문제성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통일 후 독일 사회를 통해 짧은 분단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근원적으로 이질화시켰는지 확인한 바 있다. 중요한 것은 마음 속의 분단까지 넘어서는 일이며 이를 위해서는 동일자와 타자, 자기보존과 자기망각의 끊임없는 조율과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그 조율과정이 어디에서 시작해야 할 것인가를 문제적으로 제시하며, 그래서 향후 통일을 위한 중요한 시금석이라 할 수 있다. 미지의 모험을 떠나야 하는데 의미 있는 지도를 확보했다는 것, 이것만큼 반가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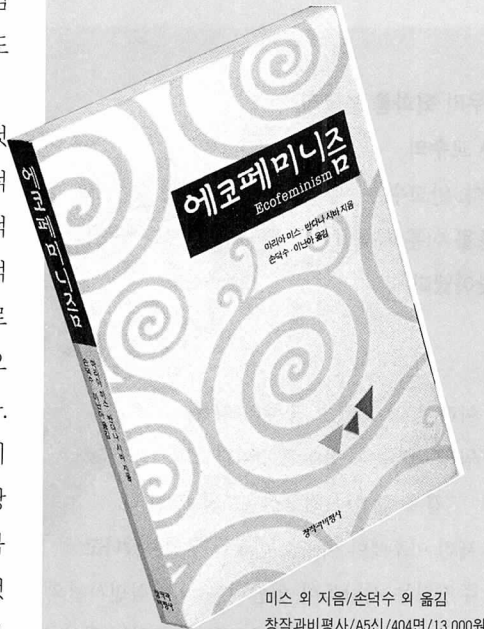
류보선

군산대 국문과 교수. 논문 <기교에의 의지, 혹은 이상 문학의 계몽성> (친일문학론의 계몽적 담론 구조) 외.

서평

가부장적 근대과학의 문제점 지적 대안적 발전모델 제시해

《에코페미니즘》



근대세계는 인간과 환경, 여성과 남성, 제1세계와 비제1세계, 공과 사 등 여러 개로 조각나고 분열된 세계다. 이 분열된 세계에서 특히 인간과 환경으로 갈라진 세계에 물음을 제기한 것이 생태론이라면, 이성(또는 국가)을 남성에게, 느낌과 감정(또는 가정)을 여성에게 귀속시킨 이 사회에 물음을 제기한 것이 페미니즘이다. 에코페미니즘은 생태론과 페미니즘이 결합한 것으로, 이는 '여성억압과 자연억압'의 원인을 가부장적 관념체제와 사회체제에서 찾는 담론적 실천이다.

이 책은 반다나 시바와 마리아 미스가 그동안 개별적으로 발표한 글들을 엮은 것이다. 시바와 미스는 생태여성론 내에서 사회주의 계열 혹은 제3세계의 입장을 대변해왔는데, 이 흐름은 여성과 남성, 자연과 인간, 자본과 노동, 그리고 제1세계와 제3세계 사이에 각각 존재하는 긴장의 물음을 같이 풀어내려 한다.

이 책은 총 7부 20장으로 구성돼 있다. 1부에선 자연을 파괴하고 여성을 억압한 원인으로 환원주의 과학의 문제점을 지적한다(1장). "16세기 이래 서구 환원주의 근대과학이 형성한 인간과 자연의 착취관계가 남성과 여성의 착취·억압적 관계와 긴밀히 연관돼 있다." 그래서 과학과 기

술은 인간중심적이고, 남성(성)중심적이다. 미스는 이런 비판에 더해 페미니스트 인식론에 근거해 학문하는 대안적인 방법론을 논한다(2장).

서구 가부장제 과학에 기반한 근대화 모델은 총체적인 위협을 낳았는데, 2부에선 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을 고민하고 있다. 그 길은 현재 지배적인 서구 따라잡기식 개발이나 남성 따라잡기식 여성운동·정책은 아니다. 오히려 따라잡기식 개발은 자연, 여성 그리고 어린이를 마지막 식민지로 삼아 이들을 더욱 빈곤화시킨다. 오늘날 근대화라는 지상명제와 WTO체제는 이 가부장적 개발방식을 전 지구로 그리고 생명의 내부로 확산시키고 끊임없이 내부식민지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확산과정을 다룬 것이 3·4·5부다.

이런 서구식 근대화로의 편입과 세계화 과정은 제3세계 여성과 농민의 강력한 저항을 받고 있다. 이들이 제기한 "벗어나는 길"은 모든 생명체에 내재한 생존본능과 의지를 되살리고 가꿔나가는 일이다. 이 벗어나는 길을 이끄는 하나의 이념이 있다면 그것은 자유와 해방이라고 두 필자는 말하고 있다. 사실 자유와 해방이란 공동의 기반에서 있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자연이란 필연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인간의 영역"이라고 확신해왔다. 그러나 생태여성론자들은 바로 이런 관점이 자연을 파괴하고 여성을 억압하는 것으로, 진정한 자유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음"과 이 결정이 사회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것에 있다고 본다(6장).

자유와 해방은 자급적 관점을 취할 때 비로소 실현된다. 이는 "남에서 이른바 비공식부문을 이루는 가정주부, 자급농민, 소생산자들의 감추어진 비임금 혹은 저임금 노동을 상품과 화폐의 제한적 성장이라는 자본주의 가부장제 모델의 토대이자 기반으로 분석하기 위해 처음 개발된 것이다." 그래서 92년 리우회의에서 합의된 '지속 가능한 발전' 조차도 시바와 미스에겐 대안적인 발전이 될 수 없다.

문순홍

이화여대 여성학과 박사후과정 연구원. 저서 《생태 위기와 녹색의 대안》, 역서 《사회생태론의 철학》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한 생태전략》 외.